



젊은 열정과 패기에 도약의 발판을 더해준다

2016 대통령 포스트닥(Post-Doc.) 펠로우십

지난 7월 22일, '2016 대통령 포스트닥 펠로우십'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연구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연구자로 선정된 11명이 대통령 명의의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육성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포스트닥 펠로우십'. 특히 올해는 생기원에서 첫 수상자를 배출해 주목받고 있다. '촉각 정보를 활용하는 로봇 손을 이용한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 구현' 과제로 수상 의 영예를 안은 융합생산기술연구소 로봇그룹 이동혁 전문가를 만났다.

포스트닥(Post-Doc.)이란?

포스트닥은 포스트 닥터의 줄임말이다. 이를 간략화 해 포스트닥 또는 포닥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말로로는 박사 후 연구과정을 뜻한다. 학위과정은 아니며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실무를 익히고 경력을 쌓는 기간을 말한다.

젊은 연구자들의 위한 지원 강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창의적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대통령 포스트닥 펠로우십'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 이공분야 연구자들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 39세 이하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로 선정된 연구자들은 1인당 최대 5년(3년+2년)간 연 1억 3천~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통령 포스트닥 펠로우십이 더욱 각광받는 건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신진 연구자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박사후(포닥) 연구원의 초기 일자리 및 연구비 지원을 통해 신진

과학자들의 독립적인 연구수행을 돕고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신진연구자 육성은 물론 과학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016년 대통령 포스트닥 펠로우십에는 총 11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 2월 연구계획서 제출 후 1차 사전검토를 거쳐 2차 패널평가, 3차 발표평가를 통해 총 11개 과제를 선정한 것. 전 이공분야를 통틀어 국가적인 파급력과 발전 가능성이 큰 연구과제가 선정되는데, 이번 포스트닥 펠로우십에 처음으로 로봇 분야에서 선정자가 배출돼 주목을 받았다.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로봇그룹 이동혁 전문가의 '촉각 정보를 활용하는 로봇 손을 이용한 인간 수준의